

실용음악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송 우 영**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실용음악분야의 NCS 분류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소분류로는 실용음악, 세분류에 1) 실용음악공연과 2) 실용음악제작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용음악 전문가협의 및 연구수행과정을 통해 NCS 실용음악분야의 단위능력 및 단위능력요소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인의 역량 및 직무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용음악학계에 직무능력이라는 분류요소를 제기함으로써, 실용음악의 인적자원개발분야에 관한 논의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 NCS의 분류요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용음악분야 NCS분류체계를 바로 세우고 실무현장을 반영한 효과적인 NCS분류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주제어: 실용음악,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 대중음악

차 례

- I. 서 론
- II. 실용음악의 이론적 고찰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현황
 - 1. 실용음악의 용어적 의미와 국내 실용음악의 발달
 - 2. 실용음악의 분류
 - 3. 대학의 실용음악학과
 - 4. 국내 실용음악 관련 산업 동향
 - 5. 실용음악분야 NCS개발 현황
- III.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념 및 특성
 - 2. NCS 분류체계와 구성요소
 - 3. 대학교육과 NCS의 관계
- IV. 실용음악분야 NCS 분류체계 개발
 - 1. 실용음악분야의 기존 NCS분류체계 문제점
 - 2. 실용음악분야의 직무능력 및 능력단위요소 도출 방법
 - 3. 실용음악분야의 NCS분류체계에 의한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 제안
- V. 결 론

* 본 연구는 나사렛대학교 2015년 학술연구비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나사렛대학교 음악목회학과 부교수

I. 서론

현재까지 순수예술에 대한 전통적 사고와 고급예술문화를 지향하는 중산층의 증가로 다양성과 대중성을 추구(이에스더 2008:133)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융합, 탈장르화, 새로운 장르의 탄생, 실용성 추구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시도들이 음악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예술,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통된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류와 사회, 문화적 요구에 부합하여 필연적으로 탄생된 것이 바로 ‘실용음악’이다. 대중문화의 여러 분야 중에서 특히 대중음악은 현대사회와 문화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늘날 실용음악은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보편적인 대중문화의 하나(강현두 외, 1998)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전부터 모 케이블종합방송에서 시작된 오디션프로그램의 열풍은 공중파로도 전해져서 슈퍼스타 K, 위대한 탄생, 보이즈 코리아, TOP밴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탄생시켰고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싸이(PSY) “강남스타일의 성공”은 한국 대중음악을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키는 사건이었다. 과거 아시아권에서만 아이돌그룹을 중심으로 한류를 퍼트렸던 한국 대중음악의 바람이 전 세계인들에게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고,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표 1> 음악산업 총괄 (출처: 음악산업백서 2014)

구분	사업체(개)	종사자(명)	매출액 (백만 원)	수출액 (천 달러)	수입액 (천 달러)
2009년	38,259	76,539	2,740,753	31,269	11,936
2010년	37,634	79,654	2,959,143	83,262	10,337
2011년	37,774	78,181	3,817,460	196,113	12,541
2012년	37,116	78,402	3,994,925	235,097	12,993
2013년	36,863	77,456	4,277,164	277,328	12,961
전년대비 증감률(%)	0.7	1.2	7.1	18.0	0.2
연평균 증감률(%)	0.9	0.3	11.8	72.6	2.1

<표 1> 음악산업 총괄표를 보면 2009년 이후 연평균 72.6%의 높은 수준으로 음악산업수출이 이뤄지고 있어서 한국의 대중음악의 수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음악산업의 발전과 대중음악의 높은 인기는 대학입시에서 실용음악학과의 높은 경쟁률로 나타났다. 실용음악학과가 개설된 많은 대학들에서 대학의 최고 경쟁률학과로 등장하였고, 일부 대학의 경우 100: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인 곳도 있었다.

실용음악학과는 1988년 서울예술전문대학에 처음으로 개설된 이후 타 대학에도 생활음악, 영상음악, 방송음악, 포스트모던음악, 컴퓨터 음악, 디지털 음악, 뮤직프로덕션 등 다양한 명칭으로 개설되었다(김예지 2014:1-14). 이들 학과에서는 한국 음악, 뮤지컬, 재즈, 팝, 록, 씨씨엠(contemporary christian music) 등을 음악과 관련된 각종악기연주, 음악을 녹음, 제작하는 엔지니어 등의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한승희 2012, p.3)하고 있다.

최근 산업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있어서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재상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개발하여 각 산업분야별 직무능력을 정하고 이를 NCS학습모듈화함으로써 체계적인 교육의 실시와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를 대학교육을 통해 양성하고자 2013년부터 직종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전문대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여 교육과정에 적용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한전·LH·석유공사 등 NCS 의무화 한 100개 기업 리스트를 발표하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100여개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올해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도입하여 학력 등 스펙 대신 직무능력을 기준으로 직원을 채용할 것으로 예정하였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15. 1월 NCS적용 일반대 학과에 대한 지원사업공모를 추진하여 일반대의 학과에서 적극적으로 NCS를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있기에, 향후 일반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초로 하여 실용음악분야의 전문가들이 산업현장에서 하여야 하는 직무단위와 직무단위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성공적으로 실용음악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갖추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향후 실용음악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학습모듈 개발과 각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화된 교육과정의 개발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실용음악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실용음악학의 정의, 실용음악의 발달, 실용음악의 분류, 대학의 실용음악학과와의 현황 및 국내 실용음악 관련 산업 동향에 대해 알아본다.

3장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념과 직무표준의 특성, NCS분류체계, NCS구성요소를 알아본다.

4장에서는 실용음악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류체계 개발을 위해 실용음악분야 NCS개발 현황, 실용음악분야의 NCS분류체계 문제점, 실용음악분야의 직무능력 및 능력단위요소 도출 방법, 실용음악분야의 NCS분류체계에 의한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를 제안한다.

Ⅱ. 실용음악의 이론적 고찰 및 NCS개발현황

1. 실용음악의 용어적 의미와 국내 실용음악의 발달

실용음악이라고 번역되는 외국어는 독일어의 Gebrauchsmusik에서 기원되었다. Gebrauchsmusik(실용음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최초의 음악학자는 하인리히 베셀러(Heinrich Bessler)였고, 13~4세기 모테트(motet)에 관한 그의 논문에서 음악은 미학의 객체로서보다는 매일 매일의 생의 일부분으로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음악이라고 피력하면서 실용음악의 역사적 근원을 제시하였다(정혜경, 1999, p.91).

위키디피아에서 정의하기를 실용음악(utility music)¹⁾이란 “가정이나 집회에서 아마추어가 실제로 연주하여 즐길 목적으로 작곡된 평이한 음악이다. 현 실용음악이란 장르에 불문하고 동시대에서 사용되는 모든 음악을 아티스트의 감성에 의해 자유롭게 표현하는 음악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두산백과에서는 “주로 연주회에서 전문가에 의하여 연주되는 ‘그 자체를 위해서 작곡된 음악’이나 ‘예술을 위한 예술’과 대비된다. 따라서 그 주요한 특징은 적당한 길이로 단순 명쾌하고 연주하기가 쉬우며, 어느 성부(聲部)이고 동등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악기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에 의한 앙상블을 위한 음악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두에 걸친 후기낭만파와 인상파 작곡가들의 지나치게 개인적인 작품과

1) Gebrauchsmusik(독), Musica d'uso(이)

기교에 대한 반동으로서, 제1차 세계대전 후 힌데미트(Paul Hindemith), 크레네크(Ernst Krenek)등이 중심이 되어 제창한 말에서 비롯되었다. 힌데미트 등은 실제로 새로운 실용음악을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바흐의 칸타타 등, 역사적으로 오래 전부터 존재한 일종의 실용음악의 부활도 시도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용음악은 팝뮤직(pop music) 또는 팝(pop)이라고도 하며 Bing 크로즈비(Bing Crosby), 프랭크 시나트라(Frank Sinatra)와 같은 가수들이 부른 종류의 노래를 포퓰러 뮤직(popular music)이라 하였다(정영남 2008:13). 그 이후 기악, 성악 등 클래식음악과, 민속음악, 국악 등 순수예술음악을 제외한 대중들이 즐겨 부르는 전반적인 음악을 지칭하는 용어로 실용음악이 쓰이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각 대학들이 사용하는 실용음악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아마추어를 위한 쉬운 음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의 목적을 가진 전문적인 음악들을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함유하고 있다. 즉 영상음악·무대음악·기능음악·대중음악 등 연주회장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 방식의 예술음악을 제외한 대부분의 음악을 총칭한다(박철홍, 2002).

실용음악은 음악 애호가에게 즉흥적이고 비전문적인 연주에 알맞은 곡을 제공함으로써 아마추어 음악가도 즐길 수 있게 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 그 흔적으로는 르네상스 시대의 간단한 건반악기나 류트(lute)악곡과 바로크 고전주의 실내 음악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실용적 음악’-일반 대중들의 실제로 감상하고 부르며 선호하는 대중가요나 팝, 영화음악과 같은 음악-을 가르치는 실용음악학과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학문적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실용음악’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김강모 2011:8).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실용음악이 대중문화의 한 영역으로 인식되어 대중음악과 비슷하거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실용음악은 주로 우리나라 대학에서 개설된 학과명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학과의 교과내용들은 대중음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실용음악의 영역에 관한 문제는 대중문화의 한 장르로 실용음악(강현두 외 2008, pp.12-13)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중문화의 산업적 역할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실용음악의 영향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이예스더 2008), 전 세계적인 K-POP 한류문화의 확산에 따른 파급효과로서 국가적 미래 전략차원에서 고부가 산업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2. 실용음악의 분류

현대사회에서 대중예술, 문화가 일반화되고, 구체화됨에 따라 실용음악 분야 또한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가는 추세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실용음악을 분류해보면 아래와 같다(이에스더 2008, p.135).

1) 실용연주(applied music music performance)

- 보컬, 키보드(피아노), 기타, 베이스, 드럼, 색소폰 등의 실용연주

2) 실용 작, 편곡(applied music composition & arrangement)

- 공연예술: 공연을 통한 예술 활동으로 뮤지컬, 예술단, 콘서트 등의 음악창작
- 방송음악: TV 드라마, 광고 등 공중파, 케이블, 인터넷 방송 등 방송에서의 음악창작
- 영상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과 접목되는 음악창작
- 대중음악: 가요, 팝, 재즈 등 대중을 위한 음악창작
- 디지털음악: 게임, 소프트웨어 등 음악창작
- CCM음악: 교회 각 장르의 음악창작

3) 녹음기술(recoding engineering)

- 라이브 엔지니어: 공연장, 극장, 체육관, 놀이공원의 PA엔지니어
- 사운드 엔지니어: 음악녹음실, 포스트프로덕션 등의 레코딩 엔지니어
- 테크니컬 서포트 엔지니어: 각종 음향기기 제조, 판매회사 등의 사운드 엔지니어

4) 사운드 디자인(sound design)

- 사운드디자이너: 영화, 방송, CF,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사운드 디자인

5) 음악경영(music business)

- 기획·연출: 음반기획 및 제작, 홍보

- 제작·경영: 음반출판, 음반, 공연 및 이벤트, 음악학원 등의 경영
- 관리·행정: 방송국, 공연장, 예술단체 등의 관리 및 행정

3. 대학 실용음악과 개설현황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육에 있어서 실용음악의 역사는 1990년대 이전에도 실용음악교육이 있었지만 클래식음악위주였고 1988년 서울예술대학에서 ‘국악과 2부’로 실용음악과가 생긴 이후 본격적인 실용음악 대학교육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정선 2000). 서울예술대학 이후에는 1994년 수원여자전문대학의 생활음악과, 1996년 대구예술대학교 음악과 내에 실용음악전공이 4년제 대학에 최초로 개설되었다. 1997년 한서대학교 영상음악과, 1998년 동덕여자대학교, 청운대학교, 동아방송대학, 2000년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전공, 2001 단국대학교 등에서 실용음악전공(이정선 2010)이 본격적으로 개설되기 시작하여 꾸준히 실용음악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순수음악분야에 비해 교육과정, 교육시스템, 교육환경이 부족한 상황이며, 21세기 전략문화산업으로 핵심분야인 실용음악의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이예스터 2008:136). 그러므로 이 분야의 우수한 인력의 배출과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 대학당국과 사회의 인식전환을 통한 대학교육기관에서의 추가 학과개설이 필요하다.

<표 2> 실용음악과 개설현황(김강모 2011)

개설연도	소재지	학교명	학과 또는 전공명
1997	대구	대구예술대학교	음악계열/실용음악전공
	서산	한서대학교	예술학부/실용음악과
1998	서울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실용음악과
	홍성	청운대학교	방송예술대학/방송음악과
2000	수원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과
	서울	경기대학교	전자디지털음악과
	무안	초당대학교	(실용)음악학과
	부산	동의대학교	음악학과(실용음악전공)
2001	천안	단국대학교	예술대학/생활음악전공
	천안	백석대학교	기독교문화예술학부/기독교실용음악학전공
2002	금산	중부대학교	실용음악학과
	안성	중앙대학교	음악예술학과(실용음악전공)
	천안	호서대학교	인문대학/기독교연예학과
2003	대구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뮤직프로덕션과
	천안	백석대학교	실용음악학과
	영암	대불대학교	교회음악과(실용음악전공)
	경산	대신대학교	음악학과(실용음악전공)

개설연도	소재지	학교명	학과 또는 전공명
2004	순천	명신대학교	음악학과(실용음악전공)
	임실	예원예술대학교	공연음악학부/실용음악전공
2005	부산	동아대학교	음악과(실용음악전공)
	대전	목원대학교	음악대학/작곡재즈학부(재즈전공)
	평택	평택대학교	방송미디어학부/실용음악학전공
2006	부산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실용음악전공)
	강릉	관동대학교	음악학부(실용음악전공)
	나주	동신대학교	문화관광학부/실용음악학과
	군포	한세대학교	음악학부(실용음악전공)
2007	광주	호원대학교	방송예술대학/실용음악학부
	광주	광주대학교	음악학부(실용음악보컬전공)
	광주	호남신학대학교	음악학과(실용음악전공)
2008	천안	성민대학교	예술체육학부/실용음악전공
2009	부산	동의대학교	음악학과(실용음악전공)
	용인	칼빈대학교	실용음악과
2010	천안	나사렛대학교	음악학부/실용음악전공
2011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현대실용음악과
	안산	한양대학교	실용음악과

4. 국내 실용음악 관련 산업 동향

음악산업 동향의 통계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2014 콘텐츠산업통계’(2013년 기준)를 기준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작성한 2014년 음악산업백서를 참고하였고 일부 통계가 없는 자료는 2012년 음악산업백서를 참고하였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2조에 의하면 “음악산업”이라함은 음악의 창작·공연·교육, 음반·음악과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과일의 제작·유통·수출·수입, 악기·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고 하여 음반과 공연 산업 등의 전통적 음악 산업 뿐 만 아니라 TV,라디오 등 방송미디어나 영화의 음악 및 핸드폰 벨소리 등의 디지털 음원산업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음반을 제작하고 배급하고 유통하는 부분이 음악 산업을 통칭하는 개념이었다면 현재의 음악 산업은 이러한 음반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유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 산업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음악 산업을 크게 나누어보면 유형물의 형태로 판매되는 오프라인 음악 산업과 음원의 다운로드, 스트리밍, 벨소리 등 무형물의 형태로 판매되는 디지털 음악 산업, 그리고 콘서트와 뮤지컬 등의 공연 산업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인 음악 산업의 분류²⁾는 다음과 <표 3> 음악산업 분류 체계와 같다.

<표 3> 음악산업 분류 체계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 정의
음악 제작업	음악 기획 및 제작업	음반 및 음원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업체(CP제외, 음원 제작 및 관련 비즈니스업을 수행하는 업체)
	음반(음원) 녹음시설 운영업	음반 또는 음원을 녹음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관련 악보를 출판하는 업체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기타 오디오물을 제작하는 업체(출판관련)
음반 복제 및 배급업	음반 복제업	음반을 복제하는 사업체
	음반 배급업	음반을 도소매업 사업체에게 배급하는 사업체
음반 도소매업	음반 도매업	음반을 도매하는 사업체
	음반 소매업	음반을 소매하는 사업체
	인터넷 음반 소매업	오프라인 음반매장이 아닌 인터넷상에서 음반을 판매하는 사업체: 외부자료 인용(통계청, “사이버쇼핑동향조사”, 2012)
온라인 음악 유통업	모바일 음악 서비스업	음원 대리 중개업체로부터 음원을 양도받아 모바일로 서비스하는 사업체(SKT, KT, LGU+만 해당)
	인터넷 음악 서비스업	음원 대리 중개업체로부터 음원을 양도받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체
	음원 대리 중개업	음원권리자로부터 음원의 권리를 양도받아 온라인상으로 중개하는 사업체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	음원을 제작하여 모바일 음악 서비스업체 및 인터넷 음악 서비스업체에 제공하는 사업체
음악 공연업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음악공연(뮤지컬, 대중음악, 클래식, 오페라, 전통공연 등)을 기획 및 제작하는 사업체(단, 연극은 제외)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	음악공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티켓발매 등)
노래 연습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사업체

- 2) 음악산업 분류는 기획, 제작, 유통 형태에 따라 중분류 7개와 소분류 16개로 체계를 마련했다.
- 음악제작업: 음악 기획 및 제작업과 음반 녹음시설 운영업
 -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 음악 복제 및 배급업: 음반 복제업, 음반 배급업
 - 음반 도소매업: 음반 도매업, 음반 소매업, 인터넷 음반 소매업
 - 온라인 음악 유통업: 모바일 음악 서비스업, 인터넷 음악 서비스업, 음원 대리 중개업,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
 - 음악공연업: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
 - 노래연습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표 4> 2013년 음악산업별 매출현황 총괄 (출처: 음악산업백서 2014)

구분	사업체(개)	종사자(명)	매출액 (백만 원)
음악제작업	1,246	2,999	771,460
음악 및 오디오물 제작업	40	78	15,077
음반복제 및 배급업	66	283	107,869
음반 도소매업	236	675	153,305
온라인 음악 유통업	285	2,458	1,059,087
음악공연업	547	3,393	667,900
노래방 운영업	34,443	67,570	1,502,466

<표 4> 음악산업별 매출현황 총괄표를 보면 노래연습장 운영업의 매출액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온라인 음악유통업, 음악제작업, 음악공연업 순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실용음악의 교육과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음악제작업과 음악공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음원의 판매, 출판,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은 음악을 관련성이 없는 분야를 전공한 이들도 충분히 경영적 마인드와 사업적 수완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실용음악을 전공한 전공자들이 전공지식과 능력을 직접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대학교의 교육과정과 관련성이 높은 음악제작업과 음악공연업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추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있어서도 음악제작업과 음악공연업을 중심으로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를 개발하고 이를 학습모듈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진행한다.

<표 5> 음악산업 음악제작업 업종별 연도별 매출액 현황(단위: 백만원)
(출처: 음악산업백서 2014)

중분류	소분류	매출액			비중 (%)	전년 대비 증감률 (%)	연평균 증감률 (%)
		2011년	2012년	2013년			
음악 제작업	음악기획 및 제작업	579,041	635,910	724,470	16.9	13.9	11.9
	음반(음원)녹음시설 운영업	40,565	44,480	46,990	1.1	5.6	7.6
	합계	619,606	680,390	771,460	18.0	13.4	11.6

<표 6> 음악공연산업 장르별 규모(2009~2011년) (출처: 음악산업백서 2012)

구분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	클래식	오페라	기타	합계
2009	142,331	43,965	41,132	14,115	16,389	257,662
2010	165,778	76,093	43,255	19,692	18,431	323,249
2011	255,448	182,587	46,632	23,253	21,237	532,257
비중(%)	48.0	34.3	9.3	4.4	4.0	100.0
전년대비 증감률(%)	54.1	140.0	14.7	18.1	15.8	64.7
연평균 증감률(%)	34.0	104.4	9.8	28.4	14.1	43.7

5. 실용음악분야 NCS개발 현황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인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만들기’와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에 있어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과 NCS 학습모듈은 중추적인 인프라 기능을 요구받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년 동안 NCS의 초기 개발이 추진되었으며, NCS 개발과 연계하여 NCS 학습모듈 개발도 추진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NCS는 2013년 254개 세분류(2014년 분류체계에서는 240개 세분류), 2014년 557개 세분류가 개발되었으며, 2015년 이후에는 전담 SC를 중심으로 상시 보완을 추진(고용노동부, 2014a)함과 동시에 일부 신규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최동선, 2015).

실용음악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2014년 현재 개발 중에 있다. 일부 실용음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용음악은 예술분야로 전문예술인을 확립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예술인을 양성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여러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실용음악분야에서 NCS가 개발 중에 있으며, 개발이 되지 못할 경우 향후 학습모듈이 개발되지 못하여 전문계 고등학교와 2년제 대학에서 학과가 사라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직업으로 실용음악이 산업계에 존재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실용음악분야의 NCS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한다.

<표 7> 실용음악분야 NCS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1. 문화·예술	1. 문화예술경영	01. 문화·예술기획
			02. 문화·예술행정
			03. 문화·예술경영
			04. 문헌정보관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2. 실용예술	01. 실용음악
			02. 실용사진
		3. 공연예술	01. 무대연출
			02. 무대조명
			03. 무대기계
			04. 무대음향
			05. 무대미술
			06. 무대감독
			07. 무대기술감독
			08. 무대장치·소품
			09. 무대의상
			10. 무대영상
			11. 하우스매니징

Ⅲ. 국가직무능력표준(NCS)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념 및 특성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임마리, 2014)으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한다.

직무능력표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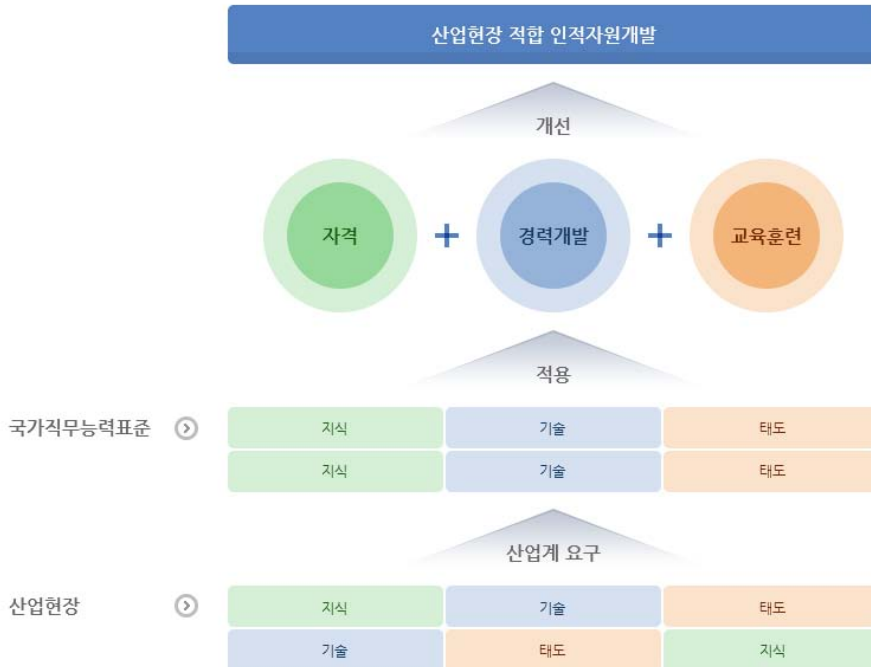
첫째, 한 사람의 근로자가 해당 직업 내에서 소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실제적인 수행능력을 의미한다.

-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최종 결과의 내용을 반영한다.
- 최종결과는 ‘무엇을 하여야 한다’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제시한다.

둘째,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수행능력을 포괄하여 제시한다.

- 작업능력: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
- 작업관리 능력: 다양한 다른 작업을 계획하고 조직화하는 능력
- 돌발상황 대처능력: 일상적인 업무가 마비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능력

- 미래지향적 능력: 해당 산업관련 기술적 및 환경적 변화를 예측하여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그림 1]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념도(출처:NCS홈페이지)

출처: http://www.ncs.go.kr/ncs/page.do?sk=P1A1_PG01_001

셋째, 모듈(module)형태의 구성

- 한 직업 내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개별 역할인 직무능력을 능력단위(unit)화하여 개발
-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여러 개의 능력단위 집합으로 구성

넷째, 산업계 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개발

- 해당분야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 산업현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근로자 또는 전문가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단계마다 참여

2. NCS분류체계와 구성요소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분류체계는 직무의 유형(Type)을 중심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단계적 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Korean Employment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를 중심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등을 참고하여 분류하였으며 ‘대분류(24) → 중분류(77) → 소분류(226) → 세분류(857개)’의 순으로 구성된다(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표 8> 세부 분류기준

분류	분류기준
대분류	직능유형이 유사한 분야(한국고용직업분류 참조)
중분류	- 대분류 내에서 직능유형이 유사한 분야 - 대분류 내에서 산업이 유사한 분야 - 대분류 내에서 노동시장이 독립적으로 형성되거나 경력개발경로가 유사한 분야 - 중분류 수준에서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SC)가 존재하는 분야
소분류	- 중분류 내에서 직능유형이 유사한 분야 - 소분류 수준에서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SC)가 존재하는 분야
세분류	- 소분류 내에서 직능유형이 유사한 분야 -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직업 중 대표 직무

출처: 국가직무능력 표준 홈페이지

http://www.ncs.go.kr/ncs/page.do?sk=P1A1_PG01_002

NCS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의 세분류를 의미하고, 세분류 단위별로 표준을 개발한다. 그리고 능력단위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의 하위단위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기본 구성요소에 해당하며 능력단위분류번호, 능력단위정의, 능력단위요소(수행준거, 지식·기술·태도),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평가지침, 직업기초능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9> 능력단위 구성항목

	구성항목	내용
01	능력단위분류번호 (competency unit code)	능력단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일련번호로서 12자리로 표현
02	능력단위명칭 (competency unit title)	능력단위의 명칭을 기입한 것

	구성항목	내용
03	능력단위정의 (competency unit description)	능력단위의 목적, 업무수행 및 활용범위를 개략적으로 기술
04	능력단위요소 (competency unit element)	능력단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핵심 하위능력을 기술
05	수행준거 (performance criteria)	능력단위요소별로 성취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이 도달해야 하는 수행의 기준을 제시
06	지식·기술·태도 (KSA)	능력단위요소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07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range of variable)	능력단위를 수행하는데 있어 관련되는 범위와 물리적 혹은 환경적 조건 능력단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 관련되는 자료, 서류, 장비, 도구, 재료
08	평가지침 (guide of assessment)	능력단위의 성취여부를 평가하는 방법과 평가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09	직업기초능력 (key competency)	능력단위별로 업무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직업능력

출처: 국가직무능력 표준 홈페이지

http://www.ncs.go.kr/ncs/page.do?sk=P1A1_PG01_003

3. 대학교육과 NCS의 관계

현재 대학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하고 학습모듈과 교과과정에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모두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긍정적인 평가는 표준화된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점이고 부정적인 평가는 모든 대학들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함으로 인해 대학, 학과마다의 특성이 사라지고 획일화된 교육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수용하기에는 대학들의 대외적인 상황어두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2년제 대학(전문대)의 경우 NCS에서 분류하지 않은 직종을 교육하는 학과의 경우, 폐과가 당연시 되고 있으며, NCS를 적용하여야만 교육부의 특성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 중인 NCS의 개발이 완료된 후 교육부는 개발된 NCS를 토대로 학습모듈을 개발하여 모든 대학들에게 교육과정에 적용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동일한 교육과정을 통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하는 것이 NCS 개발의 목표인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는 4년제 대학(대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NCS를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전문계 고등학교와 2년제 대학(전문대)에서는 NCS를 교육과정에 적용하여야만 특성화사업에 참여하여 교육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4년제 대학에서도 NCS를 적용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금번에 개발되고 있는 실용음악분야의 국가직무능력개발과 학습 모듈의 개발은 앞으로 전문계 고등학교, 2년제 대학의 실용음악학과 교육과정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보다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실용음악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IV. 실용음악분야 NCS 분류체계 개발

1. 실용음악분야의 기존 NCS분류체계 문제점

현재 <표 7> 실용음악분야 NCS분류체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분류로는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에, 중분류로는 01.문화·예술, 소분류로는 02.실용예술, 세분류에 01.실용음악으로 분류되어 있고, 실용음악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중에 있다. 현 NCS분류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소분류의 문제점

실용음악이 대분류로 08.문화·예술·디자인·방송에, 중분류로는 01.문화·예술에 속하는 것은 적절한 분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분류를 보면 01. 문화예술경영, 02. 실용예술, 03. 공연예술로서 실용음악이 실용사진과 함께 실용예술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음악과 사진이 실용예술의 분야로 분류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실용음악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규모면에서 지속적인 성장하고 있고, 산업이 점차 세분화되어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세분류로 실용음악으로만 분류할 경우 실용예술 소분류에 사진과 함께 속해 있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분류로 실용음악공연과 실용음악제작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용음악만으로 소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실용음악을 소분류로 하였기에 실용예술의 소분류 명칭도 실용사진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세분류의 문제점

현재의 세분류는 실용음악분야를 ‘실용음악’ 하나로만 세분류를 하고 있다. 이는 실용음악 관련 산업전반에 대한 이해와 산업현장, 교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결과이다. 실용음악은 2장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수요를 보면,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실용음악 전문인들에게 공연사업과 음악제작사업이 매우 중요한 분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연과 음악제작은 매우 다른 프로세스를 지니고 있으며, 각각의 전문화된 분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세분류를 실용음악공연과 실용음악제작으로 구분하여 실용음악산업분야의 전문성과 산업현장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용음악분야 NCS분류체계를 새롭게 수정하여 제안하면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실용음악분야 NCS분류체계-수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1. 문화·예술	1. 문화예술경영	01. 문화·예술기획
			02. 문화·예술행정
			03. 문화·예술경영
			04. 문헌정보관리
		2. 실용음악	01. 실용음악공연
			02. 실용음악제작
		3. 실용사진	02. 실용사진
		4. 공연예술	01. 무대연출
			02. 무대조명
			03. 무대기계
			04. 무대음향
			05. 무대미술
			06. 무대감독
			07. 무대기술감독
			08. 무대장치·소품
			09. 무대의상
			10. 무대영상
			11. 하우스매니징

2. 실용음악분야의 직무능력 및 능력단위요소 도출 방법

1) 방법 설계

직무능력모형 설계는 표준개발 프로세스를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5단

계로 구분하였을때 설계부분에 해당하며, 직무분석기법 결과를 토대로 직무에 필요한 능력요소들을 구조화한 것으로서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타 분야의 표준개발과정 및 노동부의 NCS개발 매뉴얼에 제시된 능력단위 설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개발분야에 해당하는 직무분석기법을 선택, 직무분석을 수행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능력단위 설계기준을 참조하여 능력단위 및 요소를 도출한다(김정은, 2011).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워크숍에 앞서 이론적 고찰, 타분야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여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초안에서는 실용음악분야 NCS분류체계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분류로는 08.문화·예술·디자인·방송에, 중분류로는 01.문화·예술, 소분류로는 02.실용예술, 세분류에 01.실용음악으로 분류된 기본체계를 그대로 수용하여 진행하였다.

따라서 실용음악제작과 공연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초안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표 11> 실용음악공연의 능력단위 초안

번호	능 력 단 위
1	기획하기
2	작곡하기
3	작사하기
4	편곡하기
5	보컬
6	연주하기
7	공연하기
8	음원제작하기
9	음반제작판매하기
10	연구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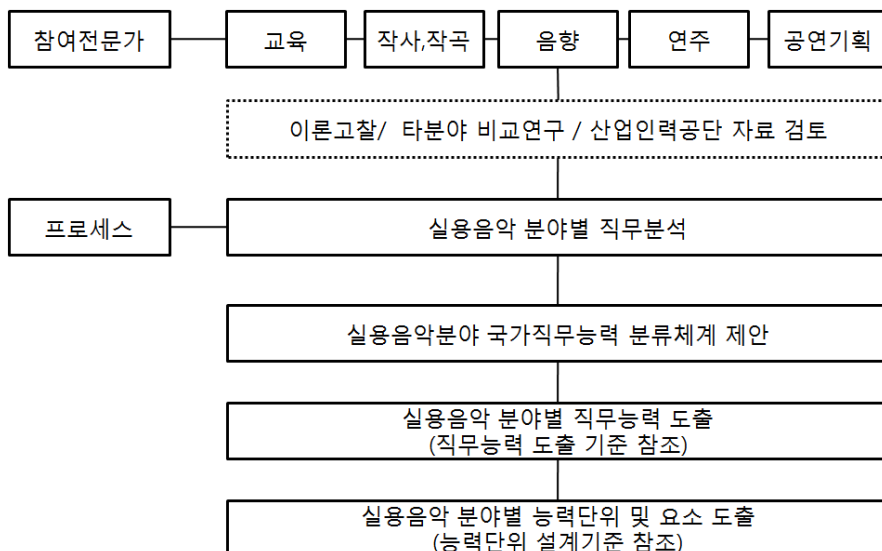
기본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무능력모형 및 역량요소 도출을 위한 방법론으로, ‘그림 2의 실용음악분야 직무능력, 능력단위 및 요소 도출과정’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여 건축시공분야, 관광레저분야, 기록관리분야의 국가직무능력 도출과정을 비교 연구하였고, 화훼장식분야 국가직무능력개발에 참여하였던 연구원의 참여과정에 대한 인터뷰와 개발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 및 자료를 연구하여 실용음악분야의 직무능력, 능력단위 및 요소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는 실용음악의 핵심 분야인 작사 및 작곡, 음향엔지니어, 연주, 공연기획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와 실용음악분야 대학교수가 참여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여, 도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참조하여 직무능력, 능력단위 및 요소를 작성하였다. 이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면담과 직접확인을 통해 검증과 보완작업을 거쳐서 기본안을 수정, 발전하였다.

도출된 직무능력요소들은 이후 각 능력단위별로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 평가지침 / 직업기초능력 등의 사항에 대한 추가 작성을 통해 실용음악분야의 직무능력표준이 완성된다.

2) 실용음악 직무능력 도출 기준수립

직무능력표준 개발시 일반적인 직무능력단위 및 요소의 도출 방법은 능력단위 설정을 위한 전문가회의에서 직무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된 지식, 능력, 태도를 유사성을 기준으로 그룹화하는 과정을 통해 능력단위 및 요소를 설정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전문가 참여에 따른 능력단위도출 및 능력단위요소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하기 위해 직무능력 도출 기준을 NCS에 기준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그림 2] 실용음악분야 직무능력, 능력단위 및 요소 도출과정

3. 실용음악분야의 NCS분류체계에 의한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 제안

본 연구에서는 실용음악분야 NCS분류체계를 대분류로는 08.문화·예술·디자인·방송에, 중분류로는 01.문화·예술, 소분류로는 02.실용음악, 세분류에 01.실용음악 공연과 02.실용음악제작으로 제안한다. 이에 대한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는 아래와 같다.

1) 실용음악공연의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

실용음악공연의 능력단위는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연기획, 공연프로그램작성, 편곡작업, 리허설, 공연홍보 및 마케팅, 본리허설, 공연하기, 공연마무리하기, 관객관리, 연구개발로 구성되어 있다.

<표 12> 실용음악공연의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

능 력 단 위	능 력 단 위 요 소	내 용
1. 공연기획	1.1 공연컨셉정하기	타겟(target)관객층 조사, 공연규모
	1.2 연주자 섭외하기	악기별, 장르별 전문연주자 섭외
	1.3 음향, 조명업체 선정하기	공연규모에 따른 무대크기에 따른 장비스펙 점검
	1.4 대관하기	관객의 접근성, 시설물, 보유장비 활용여부
2. 공연 프로그램 작성	2.1 실행매뉴얼작성하기	대관일로부터 공연준비 기간 산정
	2.2 장르선정하기	연주곡의 배분(장르별, 템포별, 연주곡/보컬곡)
	2.3 곡 순서정하기	공연 프로그램의 기승전결에 따른 스토리 라인
3. 편곡작업	3.1 작, 편곡가 섭외	창작곡, 기존곡의 분류에 따른 작,편곡자 섭외
	3.2 편곡 스타일정하기	악기 구성(현악, 관악, 리듬)에 따른 편곡스타일
	3.3 총보(score)와 파트보 제작	음악감독을 위한 총보와 연주자를 위한 파트보 제작
4. 리허설	4.1 스케줄 정하기	공연준비기간 내 팀 리허설 횟수 및 시간, 장소 확정
	4.2 팀연습하기	리허설 장소 섭외 및 지정된 일자에 리허설 진행
	4.3 파트별 개인연습하기	난이도에 따른 연주자 개인별 개인연습 요구
	4.4 편곡수정하기	난이도, 연주길이(duration) 등 편곡 수정 보완작업
5. 공연홍보 및 마케팅	5.1 개인사진, 단체사진 촬영 및 프로필확보하기	프로그램 디자인에 따른 연주자별 정보 수집
	5.2 포스터, 티켓제작하기	공연 컨셉에 맞는 포스터 디자인 의뢰
	5.3 공연홍보대행사 선정하기	온, 오프라인 공연 홍보를 위한 대행사 선정

능 력 단 위	능 력 단 위 요 소	내 용
6. 본리허설	6.1 공연연습하기	사운드 체크 및 동선 확인을 위한 최종 리허설
	6.2 음향 및 조명확인하기	연주곡 순서에 따른 무대, 음향, 조명 등
	6.3 무대의상 확인하기	곡의 무드에 따른 의상확보 및 환복 여부 결정
	6.4 악기배치도 및 무대동선확인하기	무대환경에 따른 악기배치 및 입,퇴장 동선 확인
	6.5 악기 조율하기	피아노 대여 시 사전 의뢰
7. 공연하기	7.1 악보확인하기	악보 수정 후 최종본 확인
	7.2 공연자확인하기	필요시 연주자의 컨디션 확인
	7.3 객석확인하기	초청 내빈석을 위한 안내자 확보
	7.4 공연순서확인하기	연주자 상호간 공연 순서 확인
8. 공연마무리하기	8.1 앵콜 공연하기	사회자 혹은 진행자의 앵콜곡 유도(필요시)
	8.2 관객인사하기	팬사인회, 기념촬영
	8.3 마무리 정리하기	개인 악기 정리
9. 관객관리	9.1 관객 정리 및 분류하기	입장 관객수, 연령별, 남녀별
	9.2 관람감사인사 전하기	초청 내빈 감사인사
	9.3 커뮤니티 형성하기	SNS를 통한 상호교류 유도
10. 연구개발	10.1 관객선호도 조사하기	공연 프로그램 보 완을 위한 모니터링
	10.2 신곡준비하기	공연의차별화를 위한 신곡 준비(필요시)
	10.3 차기 공연일정잡기	정기, 수시 공연
	10.4 관리방법 설명하기	공연 총평 및 참여업체 사후 관리

2) 실용음악제작의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

실용음악공연의 능력단위는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연기획, 공연프로그래밍작성, 편곡작업, 리허설, 공연홍보 및 마케팅, 본리허설, 공연하기, 공연마무리하기, 관객관리, 연구개발로 구성되어 있다.

<표 13> 실용음악제작의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

능 력 단 위	능 력 단 위 요 소	내 용
1. 음반기획 (Pre-Production)	1.1 음반 컨셉 정하기	시장 트렌드 분석
	1.2 연주자 섭외하기	연주규모, 장르별 전문 연주자 섭외
	1.3 레코딩 스튜디오 선정하기	스튜디오규모, 장비스펙에 따른 선정
	1.4 배급사 선정하기	음반 컨셉에 따른 전문 배급사 리스트 확보

능 력 단 위	능 력 단 위 요 소	내 용
2. 선곡작업 (Cd-Designing)	2.1 런닝타임, 음반 곡수 정하기	예)5분짜리 8곡 총40여분
	2.2 창작곡/기존곡 편곡 분류하기	예)창작곡4, 기존곡편곡4
	2.3 장르별 분류하기	예)재즈2, 라틴2, 발라드2, 펑크2
3. 작곡작업 (Composing)	3.1 장르별 작곡/작사 의뢰하기	장르별, 연주형태별 전문 작곡/작사가 의뢰
	3.2 데모트랙 제작하기	미디작업
	3.3 악보제작하기	연주자별, 파트별 악보제작
4. 편곡작업 (Arranging)	4.1 악기별 편곡작업 의뢰하기	연주규모, 형태별 총보 파트보 제작
	4.2 데모트랙 제작하기	미디작업
	4.3 리딩(Reading)리허설하기	초견연주 후 연주자 feed-back 요청
	4.4 편곡 수정하기	필요시 수정작업
5. 녹음 전 리허설 (Rehearsal)	5.1 스튜디오 장비, 악기 확인하기	악기별, 곡별 사용가능한 장비 확인
	5.2 데모 트랙 제작하기	모니터링용 간이녹음
	5.3 연주/합주 방법 최종정리하기	색션별 오버더빙어부
6. 녹음 (Recording)	6.1 악보 확인하기	편곡 수정후 최종본
	6.2 스튜디오 장비 확인하기	콘솔, 각종 앰프
	6.3 악기배치도 및 파티션확인하기	스튜디오 환경에 따른 파티션
	6.4 마이킹 확인하기	마이크의 종류 및 위치, 트랙 확인
	6.5 녹음 테이크(Take)수 정하기	예) 한곡당 Take1,2,3 (같은곡 3회녹음)
7. 믹싱 (Mixing)	7.1 베이직 레코딩 트랙 확인하기	베이직트랙(녹음트랙) 녹음상태 확인
	7.2 트랙선정하기	예) Take1,2,3 중 택일
	7.3 1차 믹싱 및 분석하기	프로듀서의 판단에 따른 믹싱 및 에디팅
	7.4 최종믹싱하기	머칠 간격으로 시행
8. 마스터링 (Mastering)	8.1 음반 곡 순서 확정하기	1번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의 순서
	8.2 트랙 간 길이 확정하기	예) 1번곡 끝나고 '2초'뒤에 2번곡 플레이
	8.3 최종 마스터링하기	프로듀서의 최종 의사결정
9. 퍼블리싱 (Publishing)	9.1 기존곡 저작권자 승인요청하기	곡 저작권자(대행사)와 사용허가신청
	9.2 판매용, 비매용 수량 정하기	판매용 홀로그램 수량만큼 구매
	9.3 저작권 등록하기	한국 저작권 협회
10. 음반 발매 (Distribution)	10.1 음반 표지 디자인제작하기	디자인 업체선정
	10.2 배급사와 배급계약체결하기	1장당 배급사와 경연자의 수익배분
	10.3 최종 프린트 수량 확정하기	비매(Not for Sale) 문구표기, 판매(홀로그램 부착)
	10.4 온, 오프라인 배급하기	디지털 음원 및 온라인 배급망 확보
	10.5 홍보 및 판촉하기	공연과 언론홍보

V. 결 론

현재 NCS 세분류별 직무정의표에서는 실용음악의 영역이 단순히 연주자의 역할인 음악을 연주하는 수준의 개념이 아닌 음악의 공연기획, 편곡, 작곡, 녹음 등 다양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K-Pop의 열풍으로 주요 미래산업으로 인식되기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하였으나 그러나 실용음악분야는 분야의 특성상 작곡, 편곡, 연주 등 체계화, 표준화시키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통일된 직무체계가 갖추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실용음악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실용음악에 필요한 능력을 도출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기준에 의거한 분류체계를 제시하였고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실용음악의 분류를 08.문화·예술·디자인·방송에, 중분류로는 01.문화·예술, 소분류로는 02.실용예술, 세분류에 01.실용음악으로 분류되어 있는 현재의 분류체계를 08.문화·예술·디자인·방송에, 중분류로는 01.문화·예술, 소분류로는 0.실용음악, 세분류에 01.실용음악공연과 02.실용음악제작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실용음악분야의 NCS분류체계에 의한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 제시하였다.

실용음악공연의 능력단위로는 공연기획, 공연프로그램 작성, 편곡작업, 리허설, 공연홍보 및 마케팅, 본리허설, 공연하기, 공연마무리하기, 관객관리, 연구개발 등 총 10개의 분류하였고 능력단위별 능력단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실용음악제작의 능력단위로는 음반기획, 선곡작업, 작곡작업, 편곡작업, 녹음 전리허설, 녹음, 믹싱, 마스터링, 퍼블리싱, 음반발매 등 총 10개의 분류하였고 능력단위별 능력단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실용음악분야의 직무능력 도출을 위해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실용음악의 직무능력 및 역량요소를 제시해보았다.

둘째, 국내외 직무능력표준 개발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실용음악분야에 적합한 개발 기법 및 실용음악 전문분야별 전문가 풀을 통한 표준개발의 효용성 및 당위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개인의 역량 및 직무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용음악학계에 직무능력이

라는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인적자원 개발분야에 관한 논의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이는 실용음악 전문성 입증의 출발점을 제공한다.

넷째, 현재의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의 분류체계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 대안은 제시함으로써 실용음악분야 NCS분류체계를 바로 세우고 실무현장에 맞는 NCS분류체계를 만들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전 세계적인 한류로 인해 발전해 나가는 우리나라 실용음악 산업의 특성 및 발전 동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분석 수행을 통해 실제 표준 개발사업의 추진 가능성 및 파급효과 예측에 관한 연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전문 분야별 실용음악 전문가협의 및 연구수행과정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 체제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방법의 하나로서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직무능력을 활용한 교육과정 개발이나 보다 다양한 분야의 실용음악전문가가 참여를 통해 실용음악학과 실용음악산업의 전문성 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현두, 원용진, 전규찬 (1998) **현대 대중문화의 형성**, 서울대출판부, pp.12-13
- 김강모 (2011) **국내 실용음악학과의 교육과정 분석 연구**, 한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6-24
- 김예지 (2014) **국내대학 실용음악 보컬 전공 교과과정 연구 분석**, 동의대학교 산업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4
- 김정은 (2011) **기록관리분야 직무능력표준 개발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4-48
- 김진실 (2011) **건축시공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7권 제7호(통권273호), pp.167-174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2012 콘텐츠산업통계**(2011년 기준)
- 박철홍 (2002) **실용음악의 현황과 전망**, p.3
- 이에스더 (2008) **실용음악교육의 동향과 실천적 과제**, 음악교육공학, Vol.7, pp.133-145
- 이정선 (2000) **실용음악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의 모색 :전문대학 실용음악 과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pp.20-21
- _____ (2010) **대학 실용음악교육의 시작과 학과개설형태**, 음악교육연구 Vol.38, pp.119-148
- 임마리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집행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탐색**,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6
- 정영남 (2008) **미디어스포츠**, 대한미디어, p.13
- 정혜경 (1999) **20세기 전반기 동안의 실용음악의 실제**,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91
- 최동선 (2015)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활용의 주요 이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30
-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악산업백서 (2012)**,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승희 (2012) **국내 실용음악학과 커리큘러 분석 및 인식조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p.3
- <http://ko.wikipedia.org/wiki/%EC%8B%A4%EC%9A%A9%EC%9D%8C%EC%95%85>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59125&cid=40942&categoryId=32992>
- <http://www.ncs.go.kr/> NCS홈페이지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Classification System in the Field of Applied Music

Woo-Young Song

This study discussed the issues of the current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categorization system in practical music and, as an alternative, it proposed practical music as a sub-category, and 01. practical music performance and 02. practical music production as the detailed categories. Also it established and proposed unit capacity and unit capacity elements through the discussion of practical music specialists and research processes. It is expected that by raising the issue of job performance in the practical music field where there is a shortage of research on individual capacity and tasks, this study will point out the errors of the NCS categorization system that is currently in development and present an alternative to the NCS categorization system so as to correct the NCS categorization system in practical music and create a new NCS categorization system that is suitable for the field.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promoting the curriculum development that uses job performance through discussions among practical music specialists by specialization and research processes, which it is believed will make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ation in the study of practical music and practical music industry.

Key words: practical music,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classification system, popular music

투고일: 2015년 2월 28일, 심사(수정): 4월 22일(5월 3일), 게재확정일: 5월 17일